

‘고전과 윤리’에 <금강경> <수심결> 편성

교육부 고교교육 최종 시안 확정

동서양 고전 탐독 신설
금강경 수심결 2권 포함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설과목인 ‘고전과 윤리’ 교육과정에 <금강경>과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수심결>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모든 고등학생이 인문, 사회, 과학 분야 기초소양을 쌓도록 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고전과 윤리’를 도입했다.

‘고전과 윤리’는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을 목적으로 상상력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학생들이 동양과 서양의 윤리학과 관련된 고전을 읽도록 한다. 특히 도덕적 동기와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금강경>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 <수심결>은 ‘자신과의 관계’ 단원에 포함된다. <금강경> 교육과정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는 연기적 존재임을 알고, 나의 모든 행동이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침을 깨달아 삶에서 자비를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심결>은 “진정한 나 찾기와 마음 닦는 길로서의 공부”를 통해 ‘나’는 무엇을 말하며 마음을 닦는 공부로 돈오와 점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고전과 윤리’에는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공자의 <논어>, <목민심서>, <선학>, <코란> 등 14권이 포함됐다.

교과서 개편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사회연구소 측은 “불교의 경우 <수심결>이 포함된 것은 자기수행의 측면에서 반영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불교사회연구소 측은 “<금강경>의 경우 검토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현대교육과정에 맞고 청소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법인 유예 조치 마감... 170곳 등록

조계종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미등록 법인 권리제한 유예 기간이 7월 31일로 종료됐다. 마감 결과 170개의 조계종 소속 법인들이 종단 등록을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종단 등록을 마친 법인 수는 1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단이 파악한 법인 등록 대상 수는 230곳으로 약 73%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 3월 1일까지 등록된 법인은 111곳으로 60여 곳이 증가했다.

법인 산하에 사찰을 보유한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11개 대상 법인 중 8개 법인이 등록했다. 등록한 법인은 성문불교문화재단,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대각회, 불교문화진흥선교회, 불교안양원, 연화, (재)한마음선원이다. 조계종과 갈등 중인 선화선원과 법보선원, 보리동산 등은 등록하지 않았다.

‘사찰 법인’은 7곳 대상 중 5곳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던 만불회가 7월 2일 등록을 완료했지

만, 외국인들로 임원진이 구성된 승산국제선원은 아직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 대표 사찰인 능인선원 역시 종단 등록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을

7월 31일로 등록 최종 마감

3월보다 60여 곳 등록 증가

미등록 법인 권리제한 예상

종단 차원 계도 사업 지속

중앙총회, 法 개정 전망도

완료한 사찰법인은 여진불교문화재단과 세등선원, 대한불교 삼삼선 대안사, 옥련선원, 만불회다.

4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가장 많은 등록

을 보인 곳은 스님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승려법인이다. 3월 당시 64개에 그쳤지만 현재까지 90여 개 이상의 법인이 등록을 마쳤다.

7월 31일로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미등록법인에 대한 후속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관리인 및 관리인과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종단에서 지원하는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총무직, 교육 및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의 임방이 불허되며 종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도 제한된다.

당장 문제는 미등록법인의 도제들이다. 법에 따르면 종단의 교육기관에서 수학과 고 있는 미등록법인 도제들은 더 이상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선원과 강원외의 퇴방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관계자는 “유예 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제재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예 기간을 별도로 늘리는 조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 등록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종단 차원의 계도 사업도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인관리법 미등록 법인 제재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중앙총회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월 28일 열린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총무분과위원장 함결 스님은 “선학원정상화특별위원회가 종령 개정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총회의장 성문 스님은 “9월 총회에서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만 제재하는 방침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 광범위한 제재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년 화랑이여, 다시 한자리 모이자”

대불련 총동문화, 8월 15~16일 전국동문대회

전국 500여 회원 어울림 마당
불국사·석굴암 일대 참배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 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대불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불련 총동문화(회장 백효흥)는 8월 15~1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국사, 석굴암 일원에서 ‘대불련, 다시 만나다’를 주제로 ‘제13회 전국동문대회’를 개최한다.

백효흥 총동문화장은 대회 개최에 앞서 “이번 행사는 특히 한국청년 불교의 비전과 대학생 불자 포교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역과 대학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화합하는 자리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동문대회는 동문간 교류와 총동문화 방향성 공유를 위한 토론회, 불국사·석굴암 참배, 문화특강과 연극관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8월 15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의 입제식을 시작으로 총동문화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다양한 발표회가 진행된다. 발표회에서는 △이제열 법사의 ‘청년불교운동’, △최승태 대불련 발전위원장의 ‘대불련과 총동문화의 현황과 비전’ 주제강연이 진행된다. 또 불국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진견법회와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된다.

16일에는 석굴암 참배를 시작으로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의 ‘문화재 활용을 통한 포교’ 강연등이 이어진다. 석굴암 참배의 경우 보존을 이유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만 특별히 개방돼 일반관광객 입장 전 참배가 진행된다.

백 총동문화장은 “이번 대회기간에는 함께 참여하는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모듬을 특별 운영한다”며 “동문회원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어린이 청소년 모듬에서는 사찰예절·찬불가 배우기, 불교동화 시청, 폐염경·소원등 만들기 등 불교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대불련 총동문화는 동문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상징한 엠블럼도 제작했다. 향후 대불련 총동문화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이 같은 활동을 알리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백효흥 총동문화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나라를 위한 신라화랑들의 정기를 느끼고 이를 통해 동문들이 불교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나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불교 각계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련 총동문화는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을 모연한다. 대불련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마지막날까지 모연된 쌀은 불국사에서 추천하는 교계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02)720-196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중 화합으로 당면 문제 해결하라”

조계종 대중공사 참여 스님

3일 종정·원로의장 스님 예방

특별법 제정 통한 사면 당부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참가자 스님들은 8월 3일 팔공총림 동화사 영화실을 찾아 진제 스님을 예방하고 대중공사 결과를 보고했다.

7월 29일 열린 제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결의된 사항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원로의장 밀운 스님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참여 스님들은 8월 3일 팔공총림 동화사 영화실을 찾아 진제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의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도 함께 했다.

이날 자리는 비공개로 10분간 진행됐으며, 진제 스님은 “화합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 참석한 일감 스님은 본지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중공사 참여 대중들은 종정 스님에게 “이번 대중공사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과거사 문제는 종단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일을 미리미리 해결하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는 참회의 뜻을 먼저 전했다.

이어 “이번 대중공사를 계기로 향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교가 화합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른 스님들의 뜻을 잘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감 스님은 “종정 진제 스님은 화답으

로 1600년의 한국불교 역사의 저력으로 지난 5월 간화선 무차대회에서 한국불교의 힘을 보여줬듯이 대중들이 화합해서 불교발전을 이룩하고 미래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동화사 예방에는 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지홍 스님과 도법 스님,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현호 스님, 중앙총회의원 범해·등운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후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일문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어 대중공사 참여 스님들은 오후 5시 15분에 원로의회의 의장 밀운 스님이 주석하는 봉선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대중공사 참여 스님들은 “대중공사에서 원로스

님들의 사면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잘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대중공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원로의장 밀운스님은 “우리는 자비문중이니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과거에 억울한 분들을 구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선사 예방에는 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지홍 스님과 도법 스님, 중앙총회의원 범해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후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일문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2015 신작 찬불가’ 공모

조계종 문화부, 9월 4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일)는 불교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창조적인 조화를 바탕으로 한 찬불가 보급을 위해 ‘2015 신작 찬불가 공모’를 진행한다.

불교음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불자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7월 24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접수한다.

공모분야는 △대중찬불가 △찬불가합창곡 △연등회 대중을동곡 △기타 찬불가요, 찬불동요 등 불교적 사상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으로 장르의 제한이 없다.

노랫말 내용은 △불교를 주제로 자유롭게 표현 △노랫말에 있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고 한문보다는 쉬운 말로 표현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랫말로 불교사상과 가르침을 표현 △통절(1, 2절 없이 한 문장)과 유절(1, 2절 등), 운율(3, 4박자)을 고려해 문장길이를 표현해야 한다. 단 연등회 대중 율동곡에 한해 ‘조계종 2015 연등회 대중을동곡 노랫말’ 공모 수상작을 활용할 수 있다.

공모에 동참하려면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악보 5부(제본 상태 및 파일로 제출), 음원(곡당 1개의 음원 파일 제출), 사진 1매 등을 등기우편(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문화부)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이메일과 팩스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성민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흥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ICB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문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